

## 계시록 6장

## 홍한 소식

6장에는 대환난으로 알려진 7년 동안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대환난은 19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6장에서 19장까지는 이 오래된 행성인 지구에 닥칠 공포, 멸망, 황폐에 대한 이야기이다.

### 계시록6:1-2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시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 소리 같이 말하되(6:1)

여기서 생물을 ‘짐승’(beast)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짐승’이란 우둔한 동물을 지칭하지만 본문의 생물은 살아있는 생물(living creatures)로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스랍’이라 불리는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매우 지적인 피조물이다.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6:1-2)

흰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나는 개인적으로 흰 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지상 교회를 세상에서 취하여 가실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성령의 세력도 떠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죽음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살후2:3, 7-8)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성령의 활동도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마음껏 활동하게 된다.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난 후에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따르므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는 영광스러운 평화의 시대, 곧 천 년 왕국 시대가 따를 것이다. 더욱이 이 흰 말을 탄 자는 대환난의 초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볼 수 없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라는 말은 완전한 정복을 의미한다. 즉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으로부터 권세와 왕위와 나라들을 인도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다.

이미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표시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나는 ‘평화의 상징’이 실제로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그 표는 네로 황제로부터 기원하는데 부취지고 거꾸로 된 십자가 표시이다. 나는 네로를 적그리스도로 생각한다(17:10-11 강해 참조). 그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표로 이 평화의 상징을 만들었다.

성경에는 권세 있는 사람이 일어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사람은 평화 계획과 경제적 전략을 내세우면서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세상은 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돈이 필요없는 경제 체제를 마련하는데, 모든 사람이 숫자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숫자가 없이는 매매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며, 나중에는 손이나 이마에 숫자 표시를 받게 될 것이다.(13:16)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제도에 관해 언급했다. 1974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몇몇 은행에서는 소위 “현금 없는 사회”라는 제도를 실시했다. 이것은 은행 계좌번호만으로 요금 청구서를 지불하고 모든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모든 것이 은행계좌번호로 관리되는데, 봉급 지불수표를 확인할 필요 없이 고용주로부터자동적으로 은행에 봉급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잃어버리기 쉬운 현금은 위험한 필수품이다. 많은 공공기관에는 “오후 7시 이후에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안내문이 있다. 이제는 자동차 휘발유를 사려 해도 카드번호가 필요한 때이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특권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고 재건된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이 우상은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전세계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13장)

우리는 이 우상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계산하는 재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이론화할 수 있다. 신전에 앉아 있게 될 그 우상은 환상적인 컴퓨터 시스템으로 모든 교역도 컴퓨터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모든 사람이 (컴퓨터에서) 숫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영원한 죽음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은 적그리스도에게 그 왕위를 내어줄 것이다. 사단이 그 왕위를 이 미치광이에게 넘겨줄 때까지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와 세력과 지배 아래 놓여 있을 것이다.

#### 계시록 6:3-4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6:3-4)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평화적인 계획을 가지고 올 것이다. 자신을 “평화의 사람”으로 인식시켜려 할 것이다. 이로써 실제로 세상에는 한동안 어느 정도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처음 3년 반 동안 사람들은 이 사람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번영과 평화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평화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천재야! 그는 신과 같은 존재야!” 세상은 그를 경배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룩한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한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살전5:3)

두 번째로 전쟁의 붉은 말이 나오면 세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르게 될 큰 전쟁과 충돌에 빠지게 된다.

#### 계시록 6:5-8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6:5-6)

‘밀 한 되’는 약 1퀴트(곡식의건량단위로 1퀴트는 약 1.10리터임-역주)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다.

예수님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거리로 나간 사람에 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때 그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과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마20:1-2). 오늘날 하루 품삯은 5만원 정도이다. 그러므로 밀 한 되가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는 말은 식량의 부족이나 기근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격은 품목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당시에는 밀 한 되가 약 5만원에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금이나 은을 사둬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려고 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고려할 때 가장 가치 있는 필수품은 식량이다. 금이나 은은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 현명해지려면 돈을 밀에 투자하라. 그러면 대환난 때 가장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다. 기근의 때에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림 때에는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의 징조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마24:7). 이미 어느 정도의 기근은 있다. 실제로 기근이 너무 심해서 꾸어준 것을 되돌려받을 수 없는 나라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을 모두 도울 수는 없다. 그들 모두에게 줄 충분한 양의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극심한 기근이 든 사람들만을 도울 뿐이다. 현대 산업 기술 시대의 비극은 세상에 필요한 식량을 만들어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이러한 사태는 개선되기보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전쟁 뒤에는 기근이 따른다. 지금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식량 공급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3분의 2는 굶주린 상태로 살고 있다. 식량이 남아도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나 땅이 오염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땅에 극심한 기근이 닥쳐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넷째 인을 때릴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6:7-8)

네 번째 말을 탄 자가 오는데 그 말은 파리한 사망의 말이다. 전쟁(붉은 말)과 기근(검은 말), 사망(청황색)의 파리한 말이 지나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진다. 그런 대학살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 계시록 6:9-11

다섯째 인을 때릴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기록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6:9-11)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그들은 대환난 때 순교당한 영혼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죽인 자를 심판하여 달라고 부르짖고 있다.

제단 아래 있는 이 영혼들은 교회나 교회의 순교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하늘 나라로 옮겨져서 그 피로 구속하신 어린 양께 영광의 찬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5장). 대환난 때 순교당한 이 영혼들은 계시록 7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우상을 세우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할 것이다(계 13장). 이들에게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13:15). 그렇지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 우상에 절하면 소망이 없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계14:9-11).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이다.

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런 걱정은 좋은 것이다. 우리는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회가 하늘로 올리워졌다고 해서 구원의 기회가 끝난 것은 아니다. 대환난 중에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가 들림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증거했던 사실들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러므로 그 때에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다가 순교한 이들은 흰 옷을 입고 그 수가 차기까지, 다시 말해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사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을 듣는다.

어떤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공중 재림을 놓치면 그 다음 기회에 구원을 얻어 제단 아래 순교한 영혼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오늘날 교회를 도우시는 성령의 힘으로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어렵다면, 교회와 함께 성령님이 떠나신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교회가 옮겨지고 나면 혼자 힘으로 순교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와 함께 계시는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들과 함께 대환난 전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 계시록 6:12-14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제자리에서 옮기우매(6:12-14)

유성이 쏟아지는 등 지구상에 큰 격변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 아리조나 주의 사막(Flagstaff와 Winslow 사이에 위치한)에는 거대한 운석 구멍이 있다. 운석 하나로도 놀랄 만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운석이 로스앤젤레스 같은 지역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때의 참화를 한번 상상해보라.

1908년 시베리아에 운석 하나가 떨어져 몇 마일에 이르는 숲을 뒤엎어 놓았다. 실제로 폭발과 그 피해가 너무나 엄청나서 물리학자들은 그 운석이 반물질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론상 반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반전 또는 전도된 물질이다. 물질은 전자를 갖고 있는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원자는 양성자의 핵 주위를 돌고 있다. 그런데 반물질 이론에 의하면 반물질의 원자에는 전자의 핵주위를 돌고 있는 양성자가 있다(또는 원자에서는 양성자가 전자의 핵주위를 돌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엄청난 원자폭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일부 물리학자들은 1908년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참화는 반물질의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지각 변동 사건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사야는 땅이 술에 취한 자같이 비틀대며 있던 자리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13:13; 24:20). 요엘도 이와 비슷한 일을 기록했는데 그는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고 했다(욘2:30-3; 3:15-16). 그리고 예수님도 재림 때에 이러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다.(마24:29-30)

임마누엘 벨리코프스키(Immanuel Velikovsky)가 쓴 「충돌하는 세계」(Worlds In Collision)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대전제는 금성이 인간 역사 시기에 태양계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 금성이 지구에 매우 가까이 근접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두 번째로 지구 가까이 지나갔으며, 그 후에 금성은 태양계에서 오늘날과 같은 궤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 즉 물이 피로 변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재앙들에 대해서(출7:14), 금성이 지구에 근접한 결과 수많은 운석이 떨어진 것과 관련시켜 설명하면서 바로 그 때 지구가 궤도를 수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그 시기에 지구상에 일어났던 일들과 성경의 사건들을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금성이 그 시기에 실제로 지나갔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벨리코프스키가 한 행성이 태양계에 들어올 때 발생할 사건들을 묘사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큰 지진이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뿔들(운석 소나기)이 지구에 쏟아지며, 무시무시한 참화가 발생할 것이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한쪽으로 접혀 말리듯 떠나가고 산과 섬도 모두 제자리에서 사라진다. 이것은 지구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다.

앞에서 말한 지각 변동 사건의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이론이 있다. 물리학자들은 지구의 양극에 있는 **지구축의 이동**이 매 5천 년마다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지구축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현재 지구축은 태양쪽으로 23.5도쯤 기울어져 있다. 이 경사로 인해 4계절이 생기는데, 오늘날에는 전과 같이 4계절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한때 남극에는 숲이 있었다고 한다. 조사자들은 남극의 빙하 속 200피트(약 60미터) 아래에서 목탄 침전물을 발견해 냈다.

북극 지방과 시베리아는 전에는 열대 지역이었다. 맘모스 화석이 얼음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이것은 과거에 ‘순간 냉동’ 과정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그 맘모스들의 소화기에서 열대 식물이 발견됨으로써 과거의 지구는 현재보다 더 열대성이었으며 풀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리학자들은 지구축 이동이 지구의 모든 산들을 사라지게 하는 엄청난 지각 변동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미국 유타(Utah) 주의 솔트 레이크 시(Salt Lake City) 주위는 원래 바다였는데, 지금은 호수(Great Salt Lake)만 남아 있다. 그랜드 캐년(Grand Canyon)의 남쪽 가장자리에는 많은 화석이 있다. 그 지역은 모두 대해 밑에 있던 부분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마지막 지구축 이동 때에 유타(Utah)와 아리조나(Arizona) 주를 덮고 있던 이 바다가 남쪽으로 범람하여 지금의 멕시코 만을 형성했다고 본다.

지구축 변동이 일어나면 원래 있던 모든 산들은 낮아져 없어지고 다른 부분들이 위로 솟아오르게 되며, 바다가 움직여 큰 해일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지구의 지리적 구조와 표면이 심하게 변동된다.

지구의 지구축 경사가 바뀌기 전에 지구는 마치 꼭대기가 서서히 밑으로 밀려내려오는 것처럼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경사가 바뀐다.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구는 이미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지구축의 이동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가능성이 있는 흥미로운 일이며 아마 이사야가 말한 그 일인지도 모른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자리에서 떠나리니.”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옮겨 태양의 빛을 골고루 받게 하실 수도 있다. 지구가 현재의 축을 갖지 않는다면 지구의 양극 지방에 있는 빙하도 모두 녹아내릴 것이다. 계속되는 열은 지구의 대기를 훨씬 더 습하게 만들고 세계 도처를 풀이 많은 열대성 정글로 만들 것이다.

노아 시대의 홍수도 지구축 변동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일부 과학자들이 마지막 지구축 변동이라고 말한 때와 시기적으로도 매우 가깝다. 이는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다. 대기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자외선과 적외선 투과가 많아져 결과적으로 노화 과정이 빨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인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고 놀라운 책인가를 깨닫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 계시록 6:15-17

‘공산주의가 세계를 정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계시록 6:15에 여러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6:15-17)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인내로 참고 계셨다. 그러나 주의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오고 있다. 노아 시대에도 홍수가 있기 전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120년을 기다리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낸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다. 그러나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창6:3)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연약함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다윗은 부요한 악한 자들이 “여호와가 보시냐 여호와가 들으시냐 그가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시94:7, 9)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산다. 그러나 여호와와 진노의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고 그 날은 남겨진 자들에게 큰 비극의 날이 될 것이다.

“큰 날”이 하나님의 진노, 즉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는 사실은 다시금 교회를 지상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살전5:9)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쏟아 부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 드렸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오십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창18:23-24)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창18:26). 그러나 소돔 성에는 의인 열 명도 없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오십 의인 중에 오 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오 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사십오 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사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사십 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삼십 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이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이십 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십 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창18:27-32).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구원하셨다( 롯의 아내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후에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다.(살전5:9 참조)

하나님께서서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벧후2:9)

하나님의 진노이 날이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고 그분은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